

能動的 人間의 探究(6)

哲學과 文學의 接觸面

金午星

그러나 對立物의 統一은 언제나 分離되고야 만다. 이때에는 環境과 人間의 生存은 서로 抗爭하지 안할 수 없게 된다. 人間은 지금까지 環境에 順應하든 受動的 生活을 그대로 持續 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서 人間 生存에 不安과 苦惱가 생긴다. 不安과 苦惱의 精神은 人間의 生存이 外部的 環境 때문에 威脅을 받들 때에 생기는 意識 狀態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外部的 不安은 人間에게 어떤 主體的인 決議를 갖게 된다. 人間의 生存이 外部的 不安을 超克치 안코는 營爲될 수 없음을 自覺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어떤 主體的 決意가 생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의 不安과 苦惱의 意識은 能動的 精神으로 高昂하게 된다. 이러한 能動的 精神만이 人間의 生存을 威脅하는 外部的 不安을 克復하고 나아가 明日의 새로운 生存 條件을 創建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同一한 歷史的 社會에서도 能動的 精神의 所有 層과 受動的 精神의 所有 層이 있음을 차저 볼 수 있다. 그것은 두말 할 것도 업시 同一한 社會의 內附에도 그 生活 態度를 각자 달리하는 까닭이다. 今日 現實에는 身體的 感性的 努力으로서만 그 生存을 維持하는 實踐的인 生活層과 利□과 頭腦的 活動으로서만 生活하는 觀想的인 生活 層이 갈려져 있다. 그런데 能動的 精神은 能動的인 生活 實踐에서만 나타난다. 그러므로 今日과 가튼 外部的 不安을 身體的 感性的으로 體驗하고 있는 人間 層에게만 그것을 實踐的으로 超克하려는 能動的 精神이 發揮될 것이요, 外部的 不安을 單히 觀念的으로 맞보는 人間層에게는 그것을 實踐的으로 超克 할 能力이 缺乏되어 있음으로 오직 恐怖 不安 憂鬱 絶望 悲哀 斷念 등의 受動的 精神에 支配될 것은 너무나 當然한 일이다.

그러나 또 한 가지 看過 할 수 업는 것은 同一한 實踐的 生活者이면서도 그實 全部가 能動的 精神을 發揮치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主로 傳統에의 束縛 環境에의 重壓 □性的 □□ 등에 그 原因이 있을 것이다. 더구나 今日 가

튼 混亂期에 잇서 能動的 精神이 容易하게 發揮될 수는 업는 것이다. 여기에 今日의 能動主義의 啓蒙的 役割이 잇다. 能動主義가 單히 哲學的인 人間性的 解明에 끈치지 안코 文學的 創作과 協力 結合함으로서 能動的 人間 타입을 發見 宣揚 創造하지 안흐면 안된다는 나의 本意는 이러한 啓蒙的 役割을 考慮한 까닭이다. 傳統과 環境의 重任때문에 埋沒 壓縮되어 잇는 그들의 能動的 精神을 살니는대는 百萬語의 理論 보담 今日의 不安을 超克하면서 人類의 明日을 創建할만한 生生한 能動的 人間 타입을 그들에게 提示하는 것이 가장 效果的일 것임로써 이다.

今日의 行動主義 등이 歷史的 限界性を 自覺한 知性的 인테리들에게서 提唱되고 잇음은 반가운 現象이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現實的 不安을 感性的 實踐的으로 克服하는 能動的 行動에 나갈 수 잇는가는 疑問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能動主義가 不安으로부터 再建에란 目標를 達成하려면 今日의 克服을 通하여 明日의 人類를 代表할 主體的인 人間層과 結合하지 안흐면 안 될 것이다.

끝